

노(能: 가면을 쓰고 아름다운 의상을 입고 상연되는 극)는 주로 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반면, 가부키(歌舞伎: 음악과 무용의 요소를 포함하는 일본 전통극)는 민중의 연극으로 등장했습니다. 가부키에는 2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격식 있는 지다이모노(時代物: 시대물)는 역사상의 사건을 바탕으로 주로 권력을 잡은 사무라이 계급의 이야기로 관객에게 즐거움을 줍니다. 한편 세와모노(世話物: 세태물)는 연애나 도덕적인 갈등 등을 주제로 한 일상적인 이야기가 무대에서 펼쳐집니다.

과거 가부키는 하루 종일 공연되는 경우도 있어 단골손님은 원하는 대로 드나들었습니다. 현재 공연 시간은 보통 4 시간 정도로 2~3 개의 공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몇 번의 짧은 휴식과 30 분 정도의 식사 휴식이 공연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.

가부키 공연의 특징 중 하나는 배우가 종종 제 4 의 벽(무대와 객석을 나누는 선)을 넘어 관중에게 말을 건다는 점입니다. 관중도 마찬가지로 분위기를 띄우는 형식으로 배우의 이름을 외칠 수 있습니다(이는 오무코로 알려져 있습니다). 말할 것도 없이 가부키 공연은 항상 활기가 넘치는데, 무대 연출이 가부키의 세계에 푹 빠질 수 있도록 일조하고 있습니다. 무대에서 객석까지 이어지는 가부키 특유의 통로는 하나미치(花道)라고 불리며, 종종 연기와 관객 사이의 경계선을 흐리게 만듭니다. 여기에 흥미로운 소품과 배우가 자유자재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할 수 있는 승강장치인 세리와 같은 무대의 특징이 더해짐으로써 역사적으로 풍부하고 시각적으로 매혹적인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.